



미 증시, 중간선거 결과 앞두고 낙관론 확산되며 상승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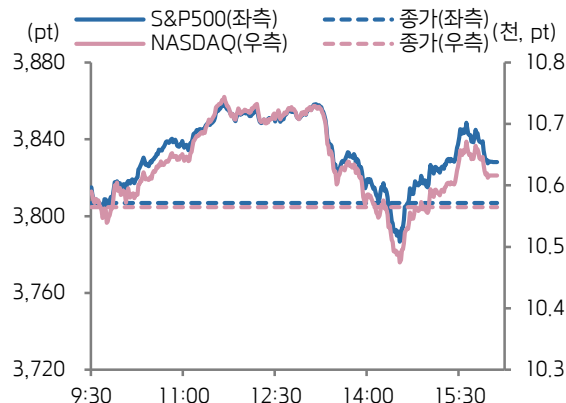
8 일(화) 미국 증시는 중간선거 결과를 앞두고 달러약세, 미 국채 금리 하락 등 위험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출발한 이후, 암호화폐시장발 악재로 장중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장 후반 이를 만회하며 상승 마감 (다우 +1.02%, S&P500 +0.56%, 나스닥 +0.49%)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유동성 위기를 맞은 FTX 인수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코인시장 불확실성 부각. FTX 가 주로 거래를 지원해온 솔라나,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 FTT 등이 청산 이슈로 인한 폭락세 시현, 이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코인들 및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 관련주 하락.

미국 10 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91.3(예상치 91.4, 전월 92.1) 기록하며 전월대비 하락.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한 비율이 증가했고, 향후 3 개월 내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하락했으나 필요 인력을 채우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전히 높았음. 집계측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혼란, 노동력 부족은 계속 많은 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역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 한편 유럽 9 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4% (예상치 0.4%, 전월 0.0%) 상승하며 예상치 부합, 12 월 소비시즌을 앞두고 부진하게 발표되며 침체 우려를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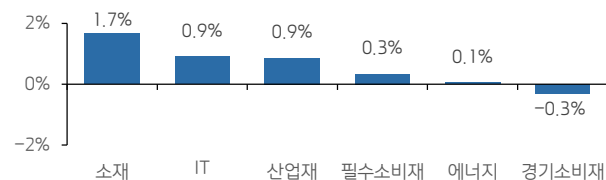
업종별로 경기소비재(-0.3%) 업종만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소재(+1.7%), IT(+0.9%), 산업재(+0.9%)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에너지(+0.1%), 필수소비재(+0.3%)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부각되며 수혜주 중심으로 강세. 민주당의 반독점 법안 및 IRA 법안 개정 가능성이 반영되며 빅테크 및 엔비디아(2.1%), 마이크론(1.64%), AMD(1.22%), AMAT(2.55%) 등 반도체 관련주 강세. 반면 전일 약세를 보였던 선파워(10.9%), 솔라엣지(19.1%) 등 주요 태양광 관련주들은 서프라이즈 실적발표와 긍정적인 가이드언스 제시하며 급등,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해도 향후 2 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점도 긍정적. 그러나 테슬라(-2.93%)는 미국에서 전기차 4 만여 대를 리콜한다는 소식 이틀연속 하락.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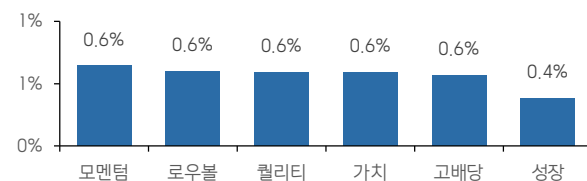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828.11	+0.56%	USD/KRW	1,385.10	-1.2%
NASDAQ	10,616.20	+0.49%	달러 지수	109.63	-0.45%
다우	33,160.83	+1.02%	EUR/USD	1.01	+0.04%
VIX	25.54	+4.89%	USD/CNH	7.23	-0.01%
러셀 2000	1,808.93	-0.05%	USD/JPY	145.68	+0%
필라. 반도체	2,503.39	+2.15%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844.62	+0.77%	국고채 3년	4.152	-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4.235	-1.2bp
Eurostoxx50	3,739.28	+0.82%	미국 국채 2년	4.651	-7.1bp
MSCI 전세계 지수	586.93	+1.09%	미국 국채 10년	4.123	-9bp
MSCI DM 지수	2,533.64	+1.05%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897.36	+1.4%	WTI	88.67	-3.4%
MSCI 한국 ETF	55.92	+2.21%	금	1716.1	+2.1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21%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7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74.7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0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국내 증시 장중에 윤곽이 나올 예정인 미국 중간선거 출구 조사 결과 2. 암호화폐 시장 폭락이 국내 관련 테마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3. 펄어비스, GS 등 국내 주요기업들의 실적 결과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금주 미 10월 CPI(한국시간 10일 밤 발표 예정)라는 대형 매크로 이벤트를 앞두고 있지만, 12월 FOMC까지 11월 CPI를 한 차례 더 맞이해야 하는 만큼 시장의 불안심리는 이전에 비해 크지 않은 모습. 지난주까지만 해도 10월 헤드라인 CPI 컨센서스가 8.0%~8.1%대를 형성했지만, 금주 들어 컨센서스가 7.9%(블룸버그기준)대로 낮아졌다는 점도 최근 증시 내 위험선호심리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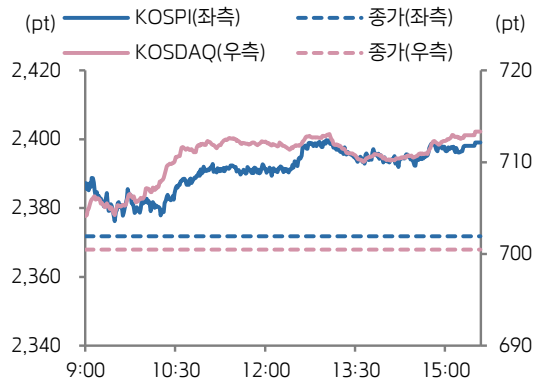
또한 정책 변화, 역사적으로 상승했던 증시 패턴 등 현재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선거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 실제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선거 직전 여론조사(Real Clear Politics) 기준으로 상하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음(상원 공화당 48석 vs 민주당 44석, 경합 8석 / 하원 공화당 227석 vs 민주당 174석, 경합 34석). 이미 주식시장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하는 것을 베이스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공화당 집권 시 유리한 전통 시클리컬, 헬스케어 업종들과 민주당 집권 시 유리한 테크, 친환경 업종들 간의 주가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양당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 민주당 바이든 정부의 여러 정책들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은 의견을 같이 하는 입장이므로 외교적인 측면에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하지만 IRA(공화당은 동맹국 참여 강조 vs 민주당은 미국 우선주의 강조), ESG(공화당은 과도한 규제, 화석연료 필요성 등으로 ESG 반대), 의료서비스(공화당은 약가인하 등 의료보장 확대에 부정적) 등 주요 분야에서 양당간 마찰을 수시로 빚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상기 분야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력으로 추진해왔던 것이기에, 대통령 고유의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긴 함. 하지만 양당이 공화당이 장악했을 때의 정치 현실을 고려 시 큰 틀에서 변화는 없더라도 세부적인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물론 이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 승리를 가정했을 경우이며, 경합지 상황에 따라 의석수가 달라질 수 있는 상원 개표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 있음. 만약 2순위 시나리오인 상원 민주당, 하원 공화당 구도로 형성될 경우, 최근 레드웨이브(공화당 승리)에 베틀해 시클리컬 등 공화당 유리 업종으로 유입됐던 증시 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이 적절. 선거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저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오후 1~2시경부터 출구조사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기에 금일 국내 증시에도 장중에 중간선거 관련 뉴스플로우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다만, 초경합지역인 조지아주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등장하지 못할 시 12월 6일에 결선투표를 치러야 하므로, 해당 지역 결과에 따라 상원 구도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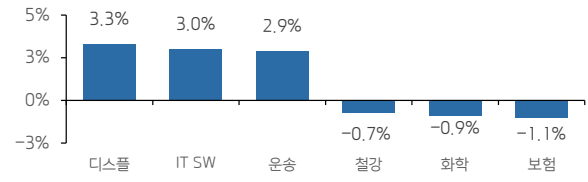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인터넷 등 낙폭과대 업종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입 속 미국 중간선거 기대감, 달러화 약세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1.2%, 코스닥 +1.8%). 금일에는 역외 10원 이상 하락한 환율(현재 1,375 원대) 등에 따른 긍정적인 외국인 수급 여건에도, 장중 출구조사가 나올 예정인 중간선거 결과를 주시하면서 2차전지 vs 자동차 등 IRA 법안 관련 업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 차원에서 눈치보기 장세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 한편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FTX 거래소의 유동성 위기로 인해 관련 코인들이 조정을 받았던 상황. 그 가운데 8일 초대형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FTX를 인수한다고 밝혔음에도 여전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들이 현재까지도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국내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할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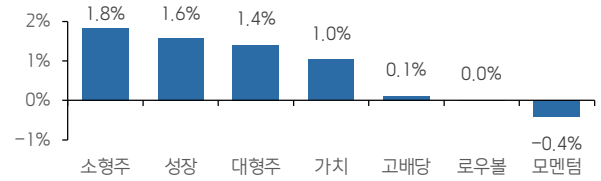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